
중국 농촌 경제체제 개혁 개황

서경택*

중국의 농촌 경제체제 개혁은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11기 3中全会가 열린 후 시작되었다. 이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일련의 방침과 정책을 반포하였고 또 이 정책의 지도하에서 그 개혁은 발전하여 왔다. 개혁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대체적으로 농업경제관리체제 개혁과 농촌유통체제 개혁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었다.

1. 개혁 전의 역사적 배경

개혁 전의 중국의 농촌경제체제의 주요 담당자는 인민공사였다. 그

* 중국 산둥대학 사회학과 교수

기본 특징으로는 조직구조상에서 政社통일을 실행하고, 생산수단의 점유는 “3급” 소유”를 기초로 실행하고, 생산경영관리 방면에서는 집체로 통일경영관리를 하여 사원(농민을 통칭함)들로 하여금 집체경제 조직의 통일안배하에서 생산노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소비품 분배는 주로 노동공분에 따라 분배를 실시하였다. 인민공사체제를 20여 년 동안이나 실행해 온 이래 이 제도에 적지 않은 병폐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천을 통해 증명되었다.

1) 政社統一은 실제로는 ‘政’으로 ‘社’를 대체함을 말하는데 집체의 행정과 경제권력이 한쪽에 집중되고 행정수단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경제법칙과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관료주의의 전횡적 지휘가 항상 발생하게 되고, 농촌집체경제의 소유권과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침범하여 집체경제에 옹당 있어야 할 활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2) 三級所有의 생산수단 소유제 관계는 실제로 행정소속 관계를 구현하였다. 평등한 등가교환의 관계가 아니라 상급조직이 하급조직을 지배하고 하급은 상급에 대하여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으며 항상 一平二調와 행정명령이 나타남으로써 하급조직의 적극성을 엄중히 손상시켰다.

3) 社員이 주인이라는 것은 단지 명의상에서이지 실제로 그들은 생산에서의 자주권이 없었으며 분배에서 엄격한 평균주의와 간부들이 모종의 권력으로 더 많이 점유하는 현상이 나타나 사원들의 적극성을 매우 감퇴시켰다.

위와 같은 폐단들은 중국의 농업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가져왔으며 게다가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여러 가지의 역조치가 실시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그 결과 농업생산이 오랫동안

1) 생산대, 생산대대, 인민공사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1966년 말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농민들의 집체분배중에서 인구당 소득은 줄곧 60元 안팎이었다.²⁾ 그중 현금은 겨우 23.7%를 차지하였고, 각 개인에게는 全年 14.9元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1978년 농민의 1인당 분배는 74.7元으로서 농촌 인민공사 核算單位에 따라 분류하면 29.6%의 단위 인구당 분배가 50元 이하이고 縣에 따라 나누면 총현의 16.3%의 인구당 분배가 50元 이하이다. 그중 1인당 분배가 40元 이하인 현은 95개이다. 당해의 농민 원량분배정황을 놓고 보면 22.7%의 농촌인민공사 기본 핵산단위의 1인당 양식이 180kg(1kg = 2근) 이하인데 그중 반수 이상이 150kg 이하이다(즉 한 사람에게 매일 0.5kg도 채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25.7%의 현인구당 식량(口糧)이 180kg 이하이고 5.6%의 현인구당 식량이 150kg 이하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혁 전 전국에 적어도 1억 이상의 농민이 생활이 극히 곤란하였다. 개혁은 우선 농민이 배불리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2. 중국 농업경제관리체제 개혁

1) 聯產도말이책임제의 보편적인 실행

농업생산책임제는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농업생산자가 자기가 맡은 생산임무를 어떻게 완수하는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이것은 노동자가 지출한 노동수량과 질량에 따라 노동보수를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2) 1992년 현재 환율로는 미화 1달러당 유엔(元)화는 5.5元이다.

이전에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한 무리의 꿀벌들’처럼 일하러 나오기는 하지만 힘을 내지 않고 분배 때는 다같이 분배받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결과였다. 농업경제관리체제 개혁의 핵심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능히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형식을 찾아 내는 것이다. 기실 이러한 가장 좋은 형식은 이미 농민들이 실천해 왔던 것이었으나, 전에는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해서 금지되었고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형식이 바로 연산도말이책임제이다. 개혁은 위로부터 아래로 이 제도를 광범히 수행하는 과정이다.

聯產³⁾ 承包制에는 聯產到組(작업조생산청부제), 聯產到勞(개인생산청부제), 聯產到戶(농가생산청부제)를 통털어서 말하며, 聯產到戶로부터 包干到戶(주요 형식은 가정청부제)로 발전하였는데 이 네 개의 책임생산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초기에서부터 차차 발전해 가는 과정(약 4년의 기간)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1979년 이후, 包產到戶(생산량을 가구에 맡김) 및 이 기초 위에서 발전, 창조된 包干到戶(노동량을 가구에 맡김)를 일부 지구에서 실행하여 매우 빨리 예상밖의 효과를 가져왔다.

(1)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지구, 예를 들면 安徽省·河南省·山東省 등에서 장기적으로 “먹는 식량은 返銷⁴⁾에 의거하고, 생산은 대부금에 의거하고, 생활은 구제에 의거”하며 雙包到戶(包產到戶와 包干到戶)를 실행하여 근근히 1년 동안에 “세 개에 의거하는” 역사를 끝내고 배불리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사상적으로 “包產到戶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로서 자본주의가 부활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결하였다. 농민이 호로 나뉘어 경영을 도맡는 가구경영은 합작경제중의 한 경영단계로서, 이런 농

3) 聯產: 연합생산

4) 返銷: 식량을 국가에 바친 후 다시 사서 먹음

호 분산경영과 통일경영을 서로 결합하는 경영방식은 광범위한 적응성을 갖고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수공노동을 위주로 하는 상황과 농업생산의 특징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현대화 진전중의 생산력 발전의 수요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과거의 包產到戶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철저한 숙청을 받게 되었다.

2) 농촌인민공사체제의 개혁

聯產承包制의 보편적인 실행, 특히 包產到戶制를 시행한 후로부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의 경제적 지위를 얻었다. 또 그들에 대한 지지와 관리를 실행하고 농촌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경제발전의 규율에 부합되는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인민공사체제를 개혁해야 했다.

人民公社체제 개혁에 대한 요지는 政社統一을 없애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包產到戶制를 기초로 하는 각급 경제조직을 건립하고 이 조직 사이에 상품교환 원칙을 실행하여 행정에 대한 예속관계를 탈피함으로써 독립적인 경제단위로 만드는 것이다. 농촌 인민공사의 政社를 각기 설립하는 개혁의 기본 내용으로는,

(1) 일반적으로 원 公社의 관할범위(원 공사의 범위가 너무 크면 적당히 작게 함)에 鄉(鎮)을 설립하여 향진정부를 세우고 인민공사를 대신하여 농촌 기초정부의 직능을 행사하며 인민공사급을 鄉級 合作경제조직으로 발전시킨다.

(2) 기본적으로 원 생산대대 범위내에 촌을 설립하고 농촌의 기층민중적 성격을 띤 자치조직-촌민위원회를 세워 해당 지구의 공공업무와 공공사업을 처리하고 인민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며 사회치안의 확립에 협조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민군중의 의견요구와 건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촌민을 지지하고 조직하여 각종 형식의 合作경제조직을 발

전시켜 해당 촌 생산에서의 근무와 조절업무를 맡는 것이다. 원래의 生産大隊를 村級 合作組織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3) 원래의 生産隊 혹은 자연촌을 범위로 하여 村民小組를 만들어 촌민위원회를 협조하여 공작을 진행한다. 인구 혹은 집체자산이 비교적 많은 생산대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대는 모두 취소하고 촌급 합작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생산경영과 조직 조절업무를 일괄적으로 책임진다.

농촌에서 政과 社를 분리하는 사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불건전한 시장기제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생활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수단의 제약을 받아 적지 않은 지역의 정사분리가 철저하지 못하며 향급정부에서 정치가 사회를 대체하고 행정이 경제에 참여하는 정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향급 집체기업이 무엇 때문에 전향 농민군중 집체소유의 성질을 체현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줄곧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촌급에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지구에서 “두 개의 간판을 걸었지만 한 무리의 人馬”, 즉 촌민위원회와 합작경제조직사업 모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도맡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해결하여야 한다.

3) 多種經濟形式의 발전

개혁 전, 중국 농촌의 생산수단 소유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집체소유제 형식으로서 기타 비공유제 경제가 존재하거나 발전하는 것은 엄금하였다. 이런 단일한 집체소유제는 농촌상품경제 발전에 적용하지 못했다. 개혁 후, 가정경영책임제가 차츰 실행됨에 따라 광대한 농민들은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얻었으며 농촌의 다종경영도 차츰 활발해져서 다종경제형식도 한층 더 발전했다.

현재 농촌에서는 이미 공유제를 주로 하고 다종 경제형식이 병존하는 새로운 생산수단 소유제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1) 전국민의 생산수단 소유제는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전국민 생산수단 소유제는 국영농장 위주인데 대륙의 각 城市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986년 국영농장 계통에 2,069개의 농장이 있고 6,530.7만 畝의 경작지가 있는데 이는 전국 경작지 총면적의 5%를 차지하고 직공은 509.5만 명이 있다. 1986년 국영농장은 6.7만 대의 대중형 트랙터를 갖고 있어 그해 전국 보유량의 7.8%를 차지하였고, 콤바인은 그해 전국 보유량의 61.2%인 1.9만 대를 갖고 있었으며, 트럭은 그해 전국 보유량의 4.5%인 2.2만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집체소유제는 일정한 발전을 가져 왔다. 현재 농촌 집체소유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절대부분의 토지, 수리시설(우물, 관개 도로, 저수지 등을 포함함), 대중형 농업기계, 공업성격을 지닌 고정자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농민의 집체소유이다. 1986년 집체자산원치는 1,180.59억 원(고정)에 달하여 1983년보다 42.1% 증가하고 이후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鄉鎮企業의 커다란 발전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농민 개인소유의 생산수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개체 상공업

(표 1) 1985년 농호 소유의 농업기계

이름	수량(만 대)	연말 전국에서 갖고 있는 비율(%)
대중형농업용트랙터	52.6	61.8
소형트랙터	340.5	89.0
기동탈곡기	280.5	60.6
농업용트럭	26.25	61.1
농업용배수관계동력기계	315.3	51.2
농업용 물펌프	266.8	51.4

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량적으로 발생하였다. 개혁 후 농민의 개인이 소유한 생산수단은 그 종류나 수량에서 큰 증가를 가져 왔으며, 초기의 간단한 농업 생산공구로부터 토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생산수단으로 발전되었다.

1984년부터 농가가 소유한 생산적인 고정자산원치는 이미 집체소유의 수량을 초과하였다. 1985년에 1,125.8억 원에 달하여 농촌의 생산적인 고정자산 총액의 53.3%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농촌개체 상공업에 등기한 호수는 이미 891.6만 호(1991년 3월의 조사에 의하면 1370.3호)인데 총업원은 1,382.3만 명으로서 1981년에 비하여 각기 8.3배, 10.3배 증가하였다.

(4) 소유제와 소유제를 겸하고 있는 연합체가 대량으로 생겨나고 발전하였다. 1986년 각종의 그러한 경제연합체가 47.81만 개에 달했고, 총업원은 422.48만 명, 고정자산원치는 59.15원이었다. 그중에는 몇몇 농가가 연합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것은 합작제, 어떤 것은 주식제, 또 어떤 것은 공동경영제 등과 같이 형식이 다양하였다. 어떤 농가는 집체 혹은 국영기업과 연합하였다. 84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가 집체(향·촌)와 연합한 것이 총연합체의 3.2%를 차지하고 국영과 연합한 것이 0.1%를 차지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집체와 국영이 연합하였거나 혹은 농민 개체·집체 및 외부자본이 연합하여 경영한 것도 있었고, 국영과 외부자본이 연합경영하는 형식도 없지 않았다.

(5) 私營경제도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고용노동 관계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개체 상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정 노동력으로는 모두 맡아 할 수 없기에 노동력을 고용하는 현상이 잇따라 나타났다. 河北省을 예로 들면 1987년 2월 사영기업이 모두 1.7만 호였는데 그중 1.6만 호의 집이 농촌에 있어 全省農戶의 1.4를 차지하였다.

농촌 다중경제형식의 출현과 발전은 잉여노동력을 전이하고 농촌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城市와 鄉의 물자교류와 인민들의 생활을 편리하

게 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1985년 농촌 재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총수의 67.3%를 차지하여 1987년보다 16.5% 감소하였다. 향촌시장도 1978년의 3.3만 개로부터 5.3만 개로 증가하여 60.1%나 증가되었고, 무역달성액은 1978년의 125억 元으로부터 524억 元으로 증가되어 3.32배 성장하였다.

4) 다종형식의 경제합작과 연합의 형성과 발전

농촌 인민공사가 해체되어 전국 농촌에는 단지 하나의 경제조직 형태만이 있는 형국이 사라지게 되었다. 가족책임생산제를 광범위하게 실행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일정한 생산수단의 점유권과 사용권을 얻어 농촌 생산경영의 주체로 되었으며 상품생산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부딪친 제일 커다란 문제는 생산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 자금, 노력 등 생산요소 및 기술, 경영능력 등 소질이 각 농가 사이에서 극히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부분생산요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에 사용되는 자금과 원료가 극히 모자라고 또 시장에 의거한 생산요소의 배치를 실현할 수 없고 규모경영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호혜의 원칙으로 연합이 나타나는 것은 농민의 생산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현재 농촌경제 합작과 연합조직의 형성방식과 그 발전으로 놓고 보면 다음의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과거의 인민공사체제중의 각급 집체경제 조직이 변화되어 온 향 집체경제 조직과 촌을 단위로 하는 지역적인 합작경제 조직이 있다. 이런 경제는 원공사 각급 집체가 새로 꾸린 기업·토지의 집체소유제 및 아직 분산되지 않은 기타 집체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농민가정경영과 집체통일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합작이다.

(2) 광대한 농민들이 자원호혜의 원칙하에서 자발적으로 조직·건

립한 각종 경제연합체: 이 경제조직은 이미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및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과 음식업 등 각종의 업종에 널리 퍼져 있는데 그중 공업이 다수이다. 1986년 우리나라 농촌의 새 경제연합체가 각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데 농업(임업, 목축, 어업을 포함한)이 16.5%, 공업이 48.2%, 건축업이 7.1%, 운수업이 14.7%, 상업과 음식업이 10% 그리고 기타 업종이 3.5%를 차지한다.

경제연합체는 동부 沿海省들의 서부지역에서 비교적 발달하였다. 예를 들면 1986년 河北, 山東, 浙江, 廣東 등 4개 성시에는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도합 24.2만 개가 있었고 甘肅, 青海, 寧夏, 新疆 4성시와 자치구에는 다만 0.8만 개로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다. 근년에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부 연해성과 서부의 발전속도 사이에는 아직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3. 농촌 유통체제 개혁

1) 城鄉通開와 다종 유통도로의 발전

개혁 전에 실행한 고도로 집중된 계획관리체제와 매우 낮은 농산품 상품률로 인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농산물 구매와 판매는 통일을 위주로 하는 歸口관리체제이고 농촌 유통도로가 단일하고 城鄉이 봉쇄되고 條塊⁵⁾가 분할되어 적으면 적을수록 통일되고 통일되면 될수록 적어지는 악순환을 조성하였다. 개혁 후 농촌경제발전은 원래의 폐쇄식의 유통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를 실행하였다. 이 방면의 개혁은 주로

5) 條塊: 촌양식계통을 예로 들면, 條는 상급양식계통에서의 관할을 의미하고, 塊는 촌정부에서의 관할을 의미한다.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공업품 유통을 원래의 城鄉分業에 따른 체제로 개혁하고 상품에 따라 분업하는 城鄉通開의 새 체제를 실행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단일한 유통도로를 개혁하고 다성분, 다갈래, 적은 환절의 유통체제를 실행한 것이었다.

2) 供銷合作社의 체제 개혁

供銷合作社는 50년대 초 농업합작화 과정중에서 농민대중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발전된 대중적인 합작 상업조직이다. 오랫동안 농촌상품생산을 촉진하고 城鄉市場을 번성시키고 대중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는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작용을 했다. 1958년 이후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供銷合作社와 상업부문이 합쳐지고 출자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지되었으며 사회민주권리가 없어지고 경제활력을 잃었다. 개혁은 원래의 供銷合作社의 성질을 회복하여, 합작사로 하여금 완전한 독립핵산, 즉 스스로 이윤과 손해를 책임지고 자주경영과 민중민주관리의 집체소유제의 경제조직으로 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농촌경제 종합업무 센터로 되게 하는 것이다.

3) 農副產品 통일구매제도의 개혁

1953년부터 국가에서 식량에 대한 통일구매와 통일판매 제도를 실시한 이래 거의 30년 동안 농부산품을 통일로 파견구매하는 품종과 수량이 부단히 증가하고 도로가 단일화되었다. 이런 제도는 가족책임생산제를 실행한 후의 농촌 상품경제 발전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개혁은 198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선 일부분의 농산품을 供銷합동제로 統一購制를 대체하였다. 후에 또 합동 定購와 시장收購로 바뀌었는데 시장收購의 내용은 농민이 스스로 자유롭게 생산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으며 자유무역을 할 수 있고 행업에 따라 시장을 세우고 질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대중들은 自由市場이라고 부른다. 장기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통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합동定購를 실시한 후에도 진일보의 개혁을 진행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오직 개혁을 진행하여야만 이 시장기제의 작용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농촌 상품경제의 진일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4) 農村資金流通

50년대에 보편적으로 건립된 농촌신용사는 공소사와 비슷한 변화를 거쳐 오랫동안 실제적으로는 국가은행의 기층단위로 되었고, '간부가 세운 것'으로 변했다. 최근에 신용사 관리체제 개혁의 핵심은 그로 하여금 민간의 손으로 관리되는 성질을 띠게 하는 것이다. 신용사체제 개혁이 부단히 심화되는 과정에서 농업은행 자신의 개혁도 차츰 전개되었는데 주로 스스로 기업화되게 하고 기층은행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985년부터 농촌금융정책을 진일보 넓히고 민간신용의 발전을 허용하였으며 농촌에서 대중이 집체로 자금을 모으는 것과 민간대부금과 민간의 금융조직 등의 다종형식이 매우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새로 세운 鄉鎮企業 중 많은 지방에서 농민을 동원하여 스스로 자금을 모아 주식회사에 투자하거나 혹은 자금으로 노동을 대치하는 방식으로 자금부족 현상을 해결하였다.

근 몇 년 사이에 농촌 민간대부금이 비교적 큰 발전을 했다. 자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증권, 채권을 시험발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일부분 향·촌합작경제조직 혹은 기업단체에 합작기금회를 건립하였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신용투자공사, 資金服務店, 주식 혹은 기금합작사, 농민출자금공사 등 민간금융조직을 건립하였다. 그 외 농가 사이의 임대도 각

지에서 발전되어 농촌자금 유통으로 하여금 다성분, 다형식, 다갈래의 새 국면이 형성되게 하였다.

농촌 각 분야의 개혁을 통하여 다방면의 관계를 조절하고 순조롭게 하였으며 농민의 생산의욕을 크게 불러일으켜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1987년 농촌의 사회 총생산액이 9041억 元에 달하여 1980년보다 32.2배나 증가되었다. 그 가운데 농업총생산액은 4447억 元에 달하여 1978년에 비하면 2.2배 증가된 것이었다. 농촌의 산업구조도 차츰 합리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1980년 농업 총생산액은 농촌사회 총생산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9%였지만 1987년에는 49.25로 19.7% 하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촌의 노동생산성과 농부산품의 상품률도 현저한 증가를 했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1978년 농업노동자가 생산한 생산액은 인구당 657元에 불과했지만 1985년에는 1195元에 달하여 81.4%나 증가되었다. 생산액에 따라 계산하면 농부산품의 상품률도 1978년의 39.9%로부터 1986년의 49.6%로 상승되었다. 농민의 수입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가져왔다. 1978년 농민의 인구당 순수입도 133.57元에서 1986년에는 423.76元으로 증가하여 32.2배나 성장하였다.